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모음에 관한 연구

- 장음과 단음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언어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

사공환*
sgh8627@knou.ac.kr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목적
Ⅲ. 조사 개요
Ⅳ. 결과
Ⅴ. 고찰
Ⅵ. 마치며

Ⅰ. 들어가며

문법이나 어휘 등 일본어 능력이 상급 레벨에 도달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음성의 습득 수준은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나 교수자의 발음 지도를 통해 학습자가 겨우 습득한 발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경우를 일본어 교수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경험했을 것이다. 이는 음성이 다른 학습 항목에 비해 습득하기 어렵고 다른 분야에 비해 모국어의 영향이 현저하고 지속적이어서 꾸준한 훈련 없이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래 들어 음성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성지도에 할애하는 시간과 음성지도·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커리큘럼의 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할 것이다.

학습자가 일본어 음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특히 습득이 어려운 항목으로 특수박을 들 수 있는데, 언어배경이 다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

* 이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음성교육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서 특수박은 학습자의 모어에 상관없이 지각과 생성이 매우 어려운 음성 항목으로 밝혀졌다.

1980년대 이후 양 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대조연구를 통해서 한국인 학습자도 일본어 특수박의 습득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은 뒤, 음의 장단의 지각 및 생성에는 리듬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각적으로 음의 장단이나 강약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을 리듬이라 하는데 음의 길이는 리듬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鹿島 1995). 그런데 하나의 말토막으로 들리는 최소 단위, 즉 리듬 단위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다. 즉, 한국어는 음절을 단위로 하는데 대해 일본어는 박(拍)을 단위로 한다. 각 박은 길이가 같고(等時性) 보통박이든 특수박이든 1박의 길이를 갖는다. 그런데 보통박의 1박은 1음절을 이루지만 특수박은 선행하는 박과 합쳐서 1음절을 이룬다. 이 점이 음절 단위인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이하, 한국인 학습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특수박의 습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는 특수박 중에서 모음의 장단 구분이 촉음이나 발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김용각 2005),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모음의 장단을 제대로 지각하거나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많고 습득의 어려움은 생성과 지각에 구분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언어내, 외적 요인이 한국인 학습자의 모음 지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습기간이나 학습 능력 등 학습자 속성과의 관계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 모음을 듣고 장음 또는 단음으로 지각 판단 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경향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지각 판단의 습득 단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기간에 따라 학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언어내적 요인-음의 장단(長短), 단어 내 장음 위치, 악센트형-을 변수로 하는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한 성과는 금후 일본어 모음의 지각 습득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목적

2.1.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특수박의 지각에는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과 함께 지각범주화, 단어 길이, 자음 종류, 악센트형, 단어 내 음의 위치, 리듬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내적 요인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악센트형이나 장, 단음의 단어 내 위치, 단어 길이, 리듬형 등이 모음 지각에 작용할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 음높이, 즉 피치와 모음 장단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前川・助川(1995), 皆川(1997)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피치 변화가 한국인 학습자의 모음 장단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前川・助川(1995)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각 연구에서 음의 높이(ピッチ)나 방언에서의 악센트 유무에 따른 차이가 모음의 장단 지각에 영향을 주고, 피치의 변화 유무가 상급 학습자에게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皆川(1997)에서도 한국・태국・중국・영국・스페인어 화자를 대상으로 악센트형과 장음 위치를 조건으로 한 실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장음에서는 「HH」형이 듣기 쉽고 「LL」형이 듣기 어렵다는 것과, 단음에서는 「H」형이 듣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치 변화가 모음의 장단 지각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大室외(1996)에서는 장모음에서의 피치 변화가 한국어화자와 영어화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길이만이 박(拍) 수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치 변화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음 지각에 단어 내 장음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皆川(1997)나 小熊(2000)에서는 어말 장음의 오답율이 높고 단음도 어말에서 오답율이 높아서, 결국 어말에서의 모음 장단의 지각 변별이 어려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두와 어중 위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특수박에 국한된 것인지 음성을 듣고 지각할 때의 보편적인 특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皆川・前川・桐谷(2002)에서는 장모음을 포함한 2음절 3모라 자극어와 장모음을 포함하지 않는 2음절 2모라 자극어를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음절 위치가 장모음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 학습자는 어두, 어중에 오는 장모음보다 어말 장모음의 지각이 보다 곤란하고, 어두와 어중에서의 청취오류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생성면의 연구로 助川・前川(1997)가 어두 위치에서 모음은 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장음의 생성이 가장 용이하고 어말 위치에서는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기 쉽다고 하였다. 사공환(2010)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한 모음의 길이가 일본어 화자의 그것보다 긴 결과를 보이는데, 특히 단모음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오류가 장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오류보다 많다는 보고를 하였다. 생성과 지각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면, 지각상으로 시간적 길이의 지각 범위가 모어화자보다 길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와 모어 화자 사이의 범주 지각에도 영향을 주어 단음의 지각에서 보다 장음의 지각에서 오답율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小熊(2000)에서는 영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를 통해 장음과 단음의 지각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이전의 연구가 주로 초급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난이도와 습득순서를 분석하였다. 단, 장음에 비해 단음의 자극어 수가 많이 적고(장음-45개, 단음-15개), 분석의 중심이 장음에 치우친 점은 아쉽다. 지금까지는 주로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음의 단음 지각 오류나 단음의 장음 지각 오류에 관해서는, 지각에 미치는 요인이나 경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음이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류에 대해서 단어 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리듬형에서 일어나기 쉬운지 등, 단음 지각에 관해서는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김용각(2005)은 특수음소 중 장음이 청취 시 판단 오류가 가장 많다고 하였는데 장음의 오류 경향을 살피기 위해 최소대립어 6쌍을 들려주고 양자택일 유형의 문항에 장음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시 단어 수가 너무 적고, 조사표의 양자택일형 문항에 대해서는 지각 범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가 장음으로 지각하지 못한 결과를 단음으로 지각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착시 현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사공환(2010)에서는 생성실험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모음의 장단 구분에 관한 음향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금번 연구를 통해서 생성과 지각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 목적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의한 일본어 모음의 장, 단 지각의 오류 경향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학습한 기간(학습력)을 달리하는 A(단기), B(중기), C(장기) 학습자군의 결과를 분석하여 지각 판단 능력의 습득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규명하기로 한다. 고찰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기간에 따른 학습자군 사이에는 모음의 장단 지각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2)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모음의 지각에 언어적 요인, 즉 단어 내 위치, 악센트형, 박 수(길이)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학습자를 A학습자군(단기), B(중기), C학습자군(장기)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장음과 단음, 단어 내 위치, 악센트형, 박 수(길이)를 변수로 한 자극음성을 들려주는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조사 개요

3.1. 피조사자

서울 방언 화자로서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일본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력(학습기간)에 따라 A집단, B집단, C집단으로 나뉘는데 A집단은 일본어 학습력이 3~15개월(평균 10.5개월)인 30명(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4, 여 17), B집단은 학습력이 15~42개월(25.3개월)인 28명(남 6, 여 22), C집단은 학습력이 33~120개월(평균 59.5개월)인 30명(남 6, 여 24)이다.[1)]

3.2. 조사 순서 및 분석 방법

(1) 조사어의 선정

장음과 단음, 박 수(단어 길이), 단어 내 위치를 고려하여 음성으로 들려줄 단어를 선정하였는데, 장음이 한 곳 포함된 단어 45개(유의미어 30개, 무의미어 15개)와 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23개(유의미어 18, 무의미어 5), 계 68 단어이다. 장음 단어는 출현 가능한 악센트형과 장음 위치를 고려한 2~3박 길이로 된 15종류의 단어이고 단음 단어는 가능한 악센트형을 고려한 2~4박 길이의, 9종류의 단어이다[2)]. 피조사자가 형태와 의미에 대한 기존 지식이 있을 수 있는 단어를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 일본어능력시험 1급 이상의 단어를 선택했고 같은 이유로 무의미어를 포함하였다.

표1. 조사 단어 유형

장음	3박・어두장음	HLL LHH
	어말장음	HLL LHH LHL
	4박・어두장음	HLLL LHHH LHHL
	어중장음	HLLL LHHH LHLL
	어말장음	HLLL LHHH LHHL LHLL
단음	2박	HL LH
	3박	HLL LHH LHL
	4박	HLLL LHHH LHHL LHLL

(※H, L은 고저 위치를 나타냄 H는 고, L은 저, 로마자 하단 선은 장음 위치)

1) 학습기간에 따라 학습자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지칭하지 않은 것은 문법이나 어휘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음성을 듣고 말하는 능력도 좋아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학습기간이 가장 긴 C군 학습자 중에 학습기간이 중간인 B군 학습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오답율을 보이는 학습자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학습기간을 기준으로만 학습자를 구분하여 명칭을 A군, B군, C군으로 하였다. 연령은 피조사자 대부분이 18~22세로, 간혹 연령차가 나는 피조사자도 있었다. 구체적인 연령 분포는 A군 18세~22세, B군 18세~27세, C군 20세~34세이다.

2) 4박 단음 단어 4종류를 제외한 20종류는 각각 유의미어 2개, 무의미어 1개로 이루어지고 4박 단음 단어 4종류는 유의미어 2개씩으로 이루어진다. 본문 13쪽 단어 리스트 참조 바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음성의 수록

방음 및 무향 기능을 완비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30대 도쿄방언화자(女)에게 단어 리스트를 주고 사전에 악센트형을 확인하고 낭독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랜덤 배열된 단어 리스트를 2회 읽도록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샘플링 주파수 및 양자화; 48Khz, 24bit). 녹음 음성은 일본어 모어화자 3명에게 들려주고 학습자와 동일한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정답율이 100%임을 확인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부자연스러운 음성이 없는지 재확인하였다.

(3) 조사 순서

조사표를 배부하고 조사 취지를 설명한 후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조사자가 긴장을 풀고 표기 방법 등 실전에 익숙해지도록 테스트용으로 본 문항과 똑같은 진행으로 연습문항 2문항을 들려주었다. 이어서 본 조사용 자극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착오에 의한 실수를 줄이고 오직 인지에 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각 자극어마다 2회 반복하여 들려주었고 문항과 문항 사이에는 5초의 간격을 두었다. 그 사이에 피조사자는 단어에 장음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고 장음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표 해당 문항 선택지의 장음이 있는 위치에 「ー」로 표시하고 장음이 없으면 「なし」에 ○를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선택지는 로마자 표기하였다. 조사 요령의 설명과 테스트를 포함해 조사에는 약 14분 걸렸다.

Ⅳ.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Excel2007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결과는 하위 검정으로 LSD법을 사용한 다중비교를 통해 양자 간의 유의차 여부를 검증하였다.

4.1. 학습기간(학습력)

표2는 각 학습자군의 장음과 단음에 대한 평균 오답율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간이 경과할수록 오답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분산분석 결과 학습기간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85)=9.71$, $p<.01$). 집단 사이에 유의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LSD법으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는데[3], 장음에서는 A집단과 B집단, A집단과 C집단 사이에 유의차가 있었으나 B집단과 C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단음에서는 B집단과 C집단 사이에 유의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A집단과 B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오답율에서 A집단과 B집단, A집단과 C집단 사이에는 유의차가 존재하나 B집단과 C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MSe=28.25). 결과를 통해 학습기간이 평균 10.5개월로 가장 짧은 A집단에서 평균 25.3개월의 B집단 사이에 장음의 지각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B집단과 학습기간이 평균 59.5개월의 C집단 사이에 장음 지각 능력의 유의미한 향상은 볼 수 없었다. 다만, C집단의 피조사자 중 오답율이 극도로 높은 C16 학습자의 결과를 제외한 경우에는 B집단과 C집단 사이에 유의차($p<.05$ 수준)가 나타났다[4].

표2. 학습자군 간의 평균 오답율 및 표준편차(SD: 표준편차)

	학습자군			전체(88명)	다중비교
	A	B	C		
장음 45개	6.8(15.1%)	3.6(8%)	2.3(5.1%)	4.24(9.4%)	장음: A>B・C*
SD	5.74	3.35	4.08	4.88	
단음 23개	3.0(13%)	2.8(12.2%)	1.5(6.5%)	2.39(10.4%)	단음: A・B>C*
SD	3.00	2.17	1.38	2.36	
전체 68개	9.8(14.4%)	6.4(9.4%)	3.7(5.4%)	6.63(9.8%)	전체: A>B・C*
SD	6.76	4.29	4.48	5.82	

*p<.05 **p<.01

3) 학습기간을 요인으로 한 세 집단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해 유의차가 나타났으므로, 이번에는 각 집단을 일대일로 놓고 그 평균을 비교하는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중비교에 LSD법을 사용한 것은 t검정보다 검정력이 높고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4) C16학습자의 경우 오답율이 34%에 달하는데 특히 장음의 지각에서는 40%의 오답율을 나타내고 있어 A집단 학습자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답이 현저히 많은 학습자는 A집단, B집단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집계에 포함하였다. 비슷한 학습기간을 거친 학습자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이산(離散)된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없이 학습기간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음 장단의 지각 능력도 따라서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역시 장음의 지각 습득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2. 단어 내 장음 위치

표3은 단어 내 장음이 놓인 위치에 따른 평균 오답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학습자군에서 어미에서의 평균 오답율이 가장 높았고 장음 위치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261)=7.65, p<.01). 따라서, 학습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한국인 학습자에게 장모음 지각 시 가장 어려운 위치가 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비교의 결과, 어두와 어미 사이의 오답율에서 유의차가 확인되었고 어두와 어중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Se=156.2). 한편, 어미 위치에서 세 피험자군의 평균 오답율을 비교한 결과 A학습자군과 B학습자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학습 초기 단계의 학습자에게 어미 위치의 장음의 지각 변별은 어중이나 어두 위치에서보다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5개월 정도 더 학습을 진행한다면 지각 능력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3. 장음 위치에 따른 평균 오답율 및 표준편차

위치	학습자군			전체(88명)	다중비교
	A	B	C		
어두(15개)	1.20(8%)	0.86(5.7%)	0.33(2.2%)	0.80(5.3%)	장음위치: 어미>어두・어중*
SD	1.67	1.35	0.96	0.00	
어중(9개)	1.23(13.7%)	0.71(7.9%)	0.4(4.4%)	0.78(8.7%)	
SD	1.41	0.81	0.97	1.14	어미: A>B・C**
어미(21개)	4.37(20.8%)	2.04(9.7%)	1.53(7.3%)	2.65(12.6%)	
SD	3.78	1.90	2.65	3.13	

-p<.1 *p<.05 **p<.01

4.3. 악센트형

표4는 악센트형에 따른 세 피조사자군의 평균 오답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장모음의 악센트형이 'LL'일 때 오답율이 가장 높고 'LH'에서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의 결과 악센트형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48)=4.47, p<.05). 악센트형 간의 양자비교를 위한 다중비교 결과, HH형과 HL형 사이에는 유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H형과 LL형 사이에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유의차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형과 HH형 사이, HL형과 LL형 사이에는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가 장음을 듣고 지각 판단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악센트형이 장모음 음절 전체가 낮은 LL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으로 오답율이 높은 것이 HL형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장모음이 포함된 음절의 뒷부분, 즉 모음의 후반부 높이가 낮으면 한국인 학습자는 장음으로 지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악센트형별 평균 오답율 및 표준편차

악센트형	학습자군			전체(88명)	다중비교
	A	B	C		
HH(9개) SD	1.03(11.5%) 1.47	0.46(5.2%) 0.69	0.37(4.1%) 1.16	0.63(6.9%) 1.19	
LL(12개) SD	2.5(20.8%) 2.56	1.14(9.5%) 1.21	0.8(6.7%) 1.45	1.49(12.4%) 1.97	HH<HL- HH<LL** LH · HH<HLLL*
HL(15개) SD	2.53(16.9%) 2.00	1.29(8.6%) 1.44	0.9(6.0%) 1.65	1.58(10.5%) 1.84	
LH(9개) SD	0.73(8.1%) 1.05	0.71(7.9%) 1.05	0.2(2.2%) 0.61	0.55(6.1%) 0.95	

-p<.1 *p<.05 **p<.01

표5. 장음 위치와 악센트형별 평균 오답율

		악센트형				전체
		HH	LL	HL	LH	
위치	어두	-	-	4.1%	6.1%	5.3%
	어중	8.7%	11.8%	5.7%	-	8.7%
	어미	6.0%	12.5%	19.3%	-	12.6%
전체		6.9%	12.4%	10.5%	6.1%	9.4%

4.4. 단음의 지각

표6은 2박(2음절)~4박(4음절)의 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음성에 대한 악센트형별 평균 오답율이다. 장음의 지각에 비해 전체적으로 오답율이 낮고(표2 참조) 일부 유형을 제외하면 학습기간이 평균 25개월 이상인 B, C학습자군에서는 오답수가 매우 적으므로 전체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6. 단음 단어의 악센트형별 평균 오답율

악센트형	학습자군			전체(88명)
	A	B	C	
HL(3개)	0.07(2.2%)	0.04(1.2%)	0.10(3.3%)	0.07(2.3%)
LH(3개)	0.37(12.2%)	0.6(20.04%)	0.07(2.2%)	0.35(11.6%)
HLL(3개)	0.67(22.2%)	0.96(32.1%)	0.83(27.8%)	0.82(27.4%)
LHH(3개)	0.13(4.4%)	0.18(5.9%)	0.03(1.11%)	0.11(3.83%)
LHL(3개)	0.3(10%)	0.29(9.5%)	0.03(1.11%)	0.21(6.88%)
HLLL(2개)	0.27(13.3%)	0.21(10.7%)	0.00(0.0%)	0.16(8.01%)
LHHH(2개)	0.47(23.3%)	0.29(14.3%)	0.13(6.7%)	0.30(14.76%)
LHHL(2개)	0.23(11.7%)	0.00(0.00%)	0.03(1.67%)	0.09(4.45%)
LHLL(2개)	0.47(23.3%)	0.18(8.93%)	0.23(11.7%)	0.29(14.64%)

먼저, 음절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답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러한 경향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단음을 지각 판단할 때 단어의 길이보다 다른 요인, 즉 악센트형이나 음절 위치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오답율이 높은 악센트형은 3음절의 HLL형, 4음절의 LHHH형과 LHLL형이다. 이중 4음절의 LHHH형과 LHLL형에 대해 학습자가 어느 음절 위치에서 장음으로 판단하는지를 그림1에 나타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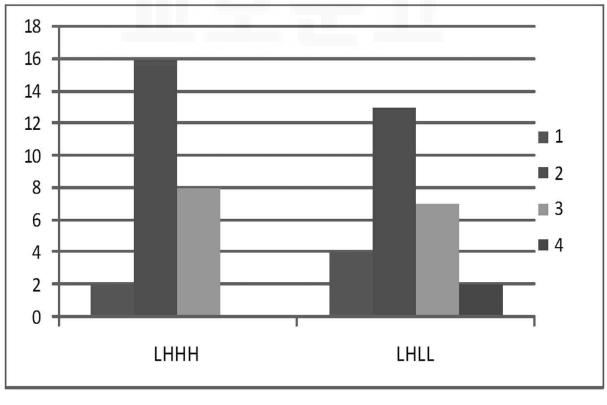

그림1. LHHH형과 LHLL형의 음절위치별 오답수(1,2,3,4는 음절위치)

5) HLL형의 오답율이 가장 높으나 오답수가 무의미 'ななな'의 어미에 집중되어 있고, 같은 유형의 유의미어 'たまき, はいご'와는 오답 경향이 전혀 달라 개별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림1은 4음절 단음 단어인 LHHH형과 LHLL형의 음절 위치별 오답수를 나타냈는데 두 유형 모두 2음절의 고음(H)에서 오답수가 가장 많았다. 첫째 음절은 낮고(L), 두번째 음절은 높은(H) 유형, 즉 LH형에서 두번째 고음(H)을 장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장음 단어에서 LH악센트형의 정답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어말(=어미) 위치의 음이 높으면 길게, 낮으면 짧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皆川 1997, 2002)와 함께, 피치가 모음의 장단 지각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고찰

5.1. 학습기간(학습력)

전체적으로 학습기간이 경과할수록 일본어 모음에 대한 학습자의 장단에 대한 지각 능력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음 지각에서는 A집단과 B집단·C집단 사이에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단음 지각에서는 A집단·B집단과 C집단 사이에 유의차가 확인되었다.

한편, 장음의 오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B집단의 결과에서 장음 단어에 대한 오답 중 다른 음절에 장음이 있다고 판단한 오답수와 'なし', 즉 단음으로 판단한 오답수를 추출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는데, 2음절(3박)어에서는 오답수 21개중 15개(71.4%), 3음절 (4박)어에서는 오답수 75개중 44개(58.7%)가 단음으로 지각한 것이었다. 장음 단어를 듣고 장음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기 보다는 장음을 단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학습자가 단어 내 장음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장음을 단음으로 오판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학습자의 범주지각 범위와 지각 판단에 작용하는 요인이 모어화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사공환(2010)에서 학습자가 생성한 모음의 길이가 일본어 화자의 그것보다 길고,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오류가 장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류보다 많았다. 생성과 지각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범주 지각에서 장음과 단음의 경계치가 모어화자보다 더 길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범주적 지각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는데, 모어 화자의 모음 장단의 지각 변별에는 모음의 길이 뿐만 아니라 피치 변화, 세기와 같은 요인도 작용하고(大室ほか 1996), 상급 학습자의 경우는 모어화자에 가깝게 다른 요인을 단서로 지각 변별한다(小熊 2000). 하지만 평균 25개월의 B학습자군의 경우 아직 음의 길이 이외의 요인을 단서로 한 모음의 장단 지각 변별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5.2. 단어 내 장음 위치

학습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군에서 어미 위치의 장음의 지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습기간이 짧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어미 위치 장음의 난이도가 높으나 학습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각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어두와 어중 위치에서는 난이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상은 皆川・前川・桐谷(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공환(2010)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생성한 모음이 어두에서보다 어말에서 장모음 길이와 단모음 길이의 범위가 겹칠 정도로 근접하게 나타나 어두보다 어말에서의 모음 장단의 구분이 생성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에서도 어두에서보다 어말에서 오답율이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생성과 지각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3. 악센트형

전체적으로 장모음의 악센트형이 'LL'일 때 오답율이 가장 높고 'LH'에서 가장 낮았다.

학습자는 HH형, LH형일 때 장음의 지각이 용이하고, LL형일 때 장음의 지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유형이 HL형으로 나타났는데, 장음절 중에서도 특히 뒷부분의 높이가 낮을 때 학습자의 장음 지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前川・助川(1995), 皆川(1997)에서 장음의 높이가 낮으면 지각이 어렵고 단음 지각에서는 고음(H)이 지각하기 어렵고, 皆川・前川・桐谷(2002)는 어말 피치가 HH형인 장모음은 지각하기 쉽고 LL형은 지각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장음 지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장음절의 모음 후반부로, 후반부가 높으면 장음으로 지각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금번 조사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皆川・前川・桐谷(2002)의 연구는 유악센트 방언 화자인 경상남도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서울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악센트 유무에 따른 방언차이가 모음의 장단 지각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4. 단음의 지각

전체적으로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장음의 지각에 비해 단음의 지각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지각의 난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단음을 지각할 때 단어의 길이보다는 음의 길이를 제외하고도 악센트형이나 음절 위치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답율이 높은 4음절의 LHHH형과 LHLL형에 대해 첫째 음절은 낮고(L), 두번째 음절은 높은(H) 유형, 즉 LH형에서 학습자가 두번째 고음(H)을 장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皆川(1997), 皆川・前川・桐谷(2002)에서 어미에서의 음이 높으면 길게, 낮으면 짧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장음 단어에서 LH악센트형의 정답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Ⅵ. 마치며

이 연구는 학습기간을 달리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여 일본어 모음 장단 지각에서의 오류 경향을 밝히려고 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생성과 지각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간이 경과할수록 일본어 모음에 대한 학습자의 장단에 대한 지각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는 장음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기 보다는 장음을 단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강하여, 학습자의 범주 지각 경계치와 범주 지각에 작용하는 요인이 모어화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인 학습자에게 어미 위치의 장음의 지각은 어두나 어중에서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악센트형에서, HH형, LH형일 때 학습자의 장음 지각이 용이하고, LL형일 때 장음의 지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인 학습자는 장음의 지각에 비해 단음의 지각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피치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모음의 지각 판단에 모방언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는 악센트가 남아있는 경상도방언과 대부분의 무악센트 방언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치의 영향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유악센트 방언 화자인 경상남도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 皆川・前川・桐谷(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악센트 유무에 따른 방언차가 모음의 장단 지각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大室외(1996)에서는 장모음에서의 피치 변화가 한국어화자와 영어화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길이만이 박(拍) 수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금후 동일한 연구 조건을 엄정히하여 모음의 장단 지각에 방언차가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자료-조사 단어 리스트▶

① 장음이 있는 단어(왼쪽에서부터 악센트형, 유의미어 / 무의미어)

HLL こーじ しーか / なーな

LHH いーね はーり / なーな

HLL たわー てきー / ななー

LHH さまー ろぼー / ななー

LHL むすー ばばー / ななー

HLLL せーばつ つーやく / なーなな

LHHH ゆーしゅつ ふーかく / なーなな

LHHL よーひし すーかい / なーなな

HLLL じろーが こふーな / ななーな

LHHH ふぐーな むだ―し / ななーな

LHLL にだーす かしーだ / ななーな

HLLL わがほー さらりー / なななー

LHHH はらげー かきぴー / なななー

LHHL だいおー めぼしい / なななー

LHLL みらすー ちかどー / なななー

==========

② 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HL おき そじ / なな

LH にら さか / なな

HLL たまき はいご / ななな

LHH ゆしゅつ ずろく / ななな

LHL きそば かきね / ななな

HLLL こるてす へそくり

LHHH ひらまさ ことわり

LHHL ふじごこ あまがさ

LHLL きりもち あさは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김용각(2005)「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발음 오류에 관한 고찰 -청해테스트이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26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123-134.

사공환(2010)「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의한 일본어 모음의 장단 구분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통합인문학연구』2-2, 방송대 통합인문학연구소, pp189-211.

大室香織・馬場良二・宮園博光・宇佐川毅・穎川裕一(1996).“日本語長母音における拍数の聞き取りについて-日本語話者と韓国語話者と英語話者の比較-”,『第10回日本音声学会全国大会予稿集』, 日本音声学会, pp71-76.

小熊利江(2000)「英語話者による長音と単音の知覚」『世界の日本語教育』10, 日本国際交流基金, pp43-55.

鹿島央(1995)「初級音声学再考」『日本語教育』86輯, 日本語教育学会, pp103-115.

助川泰彦・前川喜久雄(1997) “日本語長音の持続時間と語中位置の関係に関する実験的研究—単母音化現象と発話のスタイル—”『平成9年度日本語教育学会秋季大会予稿集』, 日本語教育学会, pp197-202.

助川泰彦・佐藤滋(1994)「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アクセント知覚における音節構造の影響」『東北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2, 東北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27-32.

前川喜久雄・助川泰彦(1995)“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よる日本語長母音の知覚”『日本音声学会全国大会予稿集』,日本音声学会, pp.40-45.

皆川泰代(1997)「長音・短音の識別におけるアクセント型と音節位置の要因-韓国・タイ・中国・英・西語母語話者の場合-」『平成9年度日本語教育学会春期大会予稿集』, 日本語教育学会, pp123-128.

皆川泰代・前川喜久雄・桐谷滋(2002)“日本語学習者の長/短母音の同定におけるピッチ型と音節位置の効果”『音声研究』6-2, 日本音声学会, pp.88-97.

❖ 투고일 : 2014.06.27
❖ 심사완료일 : 2014..08.06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모음에 관한 연구

- 장음과 단음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언어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

사공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음성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항목의 하나로 모음의 장단 구분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에 의한 일본어 모음의 장단 지각시 나타나는 오류 경향에 대해, 학습자의 학습기간, 단어 내 장음 위치, 악센트형, 단어 길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관점으로 하여 이들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방언 화자 88명을 학습기간에 따라 A군, B군, C군으로 나눈 피조사자군를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취조사에서 학습자에게 단어 내 요인을 고려한 단어 음성을 듣고 단어 내 장음의 유무와 장음이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인 학습자는 학습 기간이 늘어날수록 일본어 모음의 지각변별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 단어 내 장음 위치를 잘못 판단하기보다 장음을 단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둘째로, 한국인 학습자의 단어 내 장음 위치의 판단은 어두나 어중 보다 어말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성면에서도 장음 발음이 어말에서 어렵다는 결과가 있어 지각면과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악센트형에서는 피치가 높은 HH형이나 LH형 장음의 청취가 용이하고 LL형 장음의 청취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음에서의 높은 피치가 학습자의 지각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음의 지각보다는 단음의 지각이 더 용이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Key Words : 한국인 학습자, 장모음, 단모음, 지각, 습득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A Study of Japanese vowels produced by Korean learners
-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distinguishing long and short vowels -

Sago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how Korean students who are learning Japanese perceive long and short vowels in Japanese. Eighty-eight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for testing. The grouping was made according to the learning period. The perception of each student is measured with a listening test of 68 words that have different pitches, long vowel positions, and accent types. From this test, the following results emerged. First, as the learning period becomes longer, learners are able to perceive vowels better. This result should be obvious. But it is somewhat surprising that students have more trouble in perceiving the difference between long and short vowels than the positions of long vowels. Moreover, the factors boundary dividing the long and short vowel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ative speakers. Second, it is more difficult to perceive long vowels when they are in a final position compared to in the initial or middle positions. Third, students can perceive more accurately in the HH accent type or LH accent type than the LL accent type. Finally, students have more difficulty perceiving long vowels than short vowels.

Key Words : Korean learners, long vowels, short vowels, perception, acquisi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